

원더걸스 리더 선예, 5세 연상 캐나다 교포 선교사 박모씨와 내년 1월 결혼...이것이 궁금하다

23세 선예, 깜짝 결혼선언...왜?

- 1 어린나이·인기절정기 이례적 선택
- 2 속도위반? "2세 가진일 결코 없다"
- 3 소속사 "당분간 결혼·가정생활 전념"
- 4 5인조 원더걸스 유지? 궁금증 증폭

결그룹 원더걸스의 리더 선예(민선예·23)가 2년째 교제 중인 다섯 살 연상의 캐나다 교포 박 모(28)씨와 내년 1월 결혼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7일 "선예가 내년 1월28일 결혼한다는 계획을 최근 원더걸스 멤버들과 회사에 알렸으며, 멤버들과 회사는 선예의 결정이 신중한 고민 끝에 나온 것임을 이해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결혼소식을 짧막 발표했다.

선예는 작년 여름 카리브해의 도서국가 아이티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현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박씨를 처음 만났다. 목실한 기독교 신자인 선예는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이 잘 맞는 박씨와 사랑에 빠졌다. 박씨는 캐나다 교포로, 캐나다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처음 선교사로 부임한 곳이다.

선예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특히 아이돌 가수가 인기 절정의 시기에 결혼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서 선예의 결혼발표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게 한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선예는 소속사의 결혼발표 직후 원더걸스 팬카페 '원더풀'을 통해 "2013년 1월 26일은 제 삶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 되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평생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하는 결혼을 하게 됐다. '너무 빠르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게시 테지만 저의 결정을 믿고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결혼계획을 밝혔다.

스타들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는 대개 '속도위반'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더욱이 선예는 9월 한 여성지가 제기한 자신의 10월 결혼설에 직접 SNS를 통해 "오보

로 공개된 저의 다음 달 결혼소식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바 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선예가 2세를 가졌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으며, 두 사람이 지금이 함께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뜻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선예는 작년 11월 SBS '강심장'에서 박씨와의 교제를 알리며 "소속사가 정한 '연애금지기간'이 풀리기 전에 남자친구를 사귀게 돼 신호위반을 한 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혼발표 역시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인 상태에서 결혼을 발표하는 '신호위반'을 한 셈이다.

●원더걸스, 잠정 활동중단? 해체?

JYP엔터테인먼트는 27일 선예의 결혼 소식을 알리며 "선예는 앞으로 당분간 결혼과 가정 생활에 전념할 예정이며, 원더걸스의 다른 멤버들은 연기, 프로듀싱, 솔로음반, 방송활동 등 개인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당분간 원더걸스의 활동은 없음을 알렸다.

선예는 JYP엔터테인먼트에서 7년의 연습 생활을 했고, 가창력이 뛰어나 원더걸스의 핵심 멤버로 꼽힌다. 문제는 선예의 활동중단이 언제까지 지속되며 또 원더걸스가 언제 다시 5인조로 뭉쳐 활동을 할 수 있느냐다. 더욱이 선예의 예비신랑이 캐나다 교포여서 선예는 결혼 후 외국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더걸스의 일부 멤버는 2013년이 JYP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라서 원더걸스의 향후 행보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선예가 결혼한다고 해서 팀을 탈퇴하거나 원더걸스가 해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선예는 2013년 결혼일지만 확정했다. 예식장과 신혼집 등 결혼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연말까지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 원더걸스 활동이 잡혀 있는 선예는 연말까지 활동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결혼준비를 할 예정이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트위터@ziodadi



스포츠동아DB

김병만, 나눔도 '달인'

나눔센터 설립...저소득층에 8번째 무료점포 선물



개그맨 김병만(사진)이 '나눔의 달인'으로 떠올랐다.

김병만은 11월 초 '김병만의 나눔센터'라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저소득층과 불우이웃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

'나눔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

들의 사연을 받아 김병만이 무료로 점포를 열어주거나,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한다. 최근 김병만의 도움으로 여덟 번째 점포까지 문을 열었다. 재원은 김병만이 직접 마련한다.

김병만이 '나눔센터'를 연 것은 물질적 기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직접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자'는 취지에서다. 김병만 역시 힘들고 가난한 시절을 보내고 지금의 자리에 올라 누구보다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잘 안다. 한 측은 "김병만이 힘든 과거를 보내 평소 입버릇처럼 '좋은 일을 하자'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 드리지'고 했다. 기회를 엿보다 직접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도움을 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만은 이와 관련한 행사가 있는 날이면 모든 스케줄을 정리하고 나눔 활동에 힘쓴다. 현재 SBS '정글의 법칙', MBC 시트콤 '엄마가 뭐길래' 등 출연 중인 프로그램만 7편이지만 '나눔센터'와 관련한 일정은 직접 챙길 정도로 남다른 애착을 드러내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스타 온라인

'11자 복근' 솔비 "여행와서까지 운동중"



가수 솔비가 '11자 복근'을 과시했다. (사진) 솔비는 27일 미투데이에 배를 드러낸 상반신 사진을 공개하며 "살찌면 죽음이란 생각이 여행 와서까지 운동합니다. 아침에 해운대에서 달렸어요"라며 "식욕이 왕성한 겨울을 조심해요, 우리~ 살찌면 용서안할 거 같아요"라고 글을 남겼다. 사진 속 솔비는 검은 탭시트를 입고 복부를 드러내고 있다. 희미하지만 '11자' 모양으로 갈라진 복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누리꾼들은 "복근 완전 부러워요" "다이어트는 여자의 평생 숙제"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레인보우 재경, 교복에 생머리 '청순미 발산'



결그룹 레인보우의 멤버 재경이 여고생으로 돌아갔다. 재경은 27일 트위터에 "KBS 2TV '닥치고 패밀리' 고교생! 교복의 비밀이 풀립니다"며 교복 차림 사진을 공개했다. 동덕여대에서 의상디자인을 전공 중인 재경은 사진 속에서 고교 교복을 가지런히 입고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며 청순한 미모를 뽐내고 있다. 한 손에는 '닥치고 패밀리'의 대본을 들고 카페에 출연을 예고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교복 입으니 여고생 같다" "이런 여고생과 사귀어봤으면" 등 호기심을 드러냈다.

이영애 다큐로 안방컴백

기부·나눔 주제 MBC특집 출연

배우 이영애(사진)의 TV 복귀 무대는 드라마가 아닌 다큐멘터리로 확인됐다.

이영애는 MBC가 제작 중인 나눔과 기부 관련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한다. 또 이웃 사랑을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MBC 스페셜' 출연도 예정돼 있다.

이영애의 이번 다큐멘터리 출연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깊다. 우선 2009년 8월 결혼 이후 처음으로 안



방극장에 복귀한다. 이영애는 2004년 MBC 드라마 '대장금'과 2005년 영화 '친절한 금자씨' 이후 연기 활동을 중단해 왔다.

2008년 MBC 스페셜 '나는 이영애다' 출연 이후 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이영애는 사회 다양한 계층의 기부 문화를 전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최근 미국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돕고 있는 사실을 처음 공개한다. 또 최근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화제를 모은 뉴욕 데모크라시 고교생들의 한국 탐방 비용을 후원한 사연도 소개한다. 이영애는 그동안 빈곤구복 아니라 미국 교육기관에도 꾸준히 기부 해왔다.

결혼과 쌍둥이 출산 이후 드라마 '대장금

2' 출연 여부로도 관심을 끈 이영애는 당분간 드라마보다는 다큐멘터리에 적극적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애 측 관계자는 27일 "쌍둥이 자녀 육아때문에 연기 활동은 어렵지만 대신 기부나 나눔을 전하는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얼마 전 미안마 어린이를 위한 학교 설립 비용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애는 MBC '기분 좋은 날'이 이영애의 경기도 양평의 새 집에 대해 방송한 데 대해 17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1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가수 이루가 인도네시아에서 국민급 대접을 받으며 새로운 케이팝 스타로 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이루가 행사를 위해 이동할 때 경찰의 경호를 받는 모습(오른쪽)과 이루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현지 팬들. 사진제공 | 이루기획



이루, 인도네시아서 국민급스타 예우

인니영화 '헬로 굿바이' OST 직접 불러 자카르타 공항 구름팬...경찰 특급호위 VVIP사사회·사인회 등 스케줄도 빼곡

가수 이루가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를 이끄는 새로운 케이팝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자신이 출연하고 주제가를 부른 인도네시아 영화 '헬로 굿바이' 현지 개봉에 맞춰 21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이루는 현지 경찰의 특별경호 등 국민급 대접을 받으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소속사 이루기획은 27일 "이루는 입국 이튿날부터 인도네시아 여성부 장관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VIP 사사회를 시작으로 팬 사인회, 글로벌TV 음악방송 '100% Ampuh', RCTI 방송사의 자선 콘서트 등 TV와 라디오 출연 등으로 하루 10개 안팎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한류스타를 넘어 한국의 대중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루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은 이미 21일 입국 때부터 예견됐다.

이루기획은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 도착 때부터 수많은 팬이 몰려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면서 "일정마다 구름팬들이 몰려들어 사인 요청을 하는 등 안전 전상 우려가 있어 현지 경찰들이 특별 호위하며 스케줄 진행을 돕는 등 국민급 대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낸 이루는 특히 유망한 영어 실력으로 현지 매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이루의 이 같은 인기는 '까만 안경'의 히트 덕이다. 현지에는 한국의 발라드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 이 곡이 히트하면서 자연스레 영화 '헬로 굿바이'의 주제곡으로 쓰이게 됐다. 소속사는 "팬들이 '까만 안경'뿐 아니라 '흰 눈' '미워

요' 등 이루의 다른 노래까지 따라 부를 정도"라고 전했다.

29일 현지 120여개 극장에서 개봉하는 '헬로 굿바이'는 인도네시아의 대표 여배우 아티카 하시룰라와 리오 드완토가 출연하고, 현지 최대 영화사인 팔콘픽처스가 제작한 작품. 인도네시아 청춘남녀의 사랑을 그린 영화로 올해 상반기 부산에서 촬영했다. 이루는 극중 한류스타 역할을 맡기도 했다.

현지에서 뜨거운 인기를 확인한 이루는 내년 1월 인도네시아 투어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등 다른 동남아시아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30일까지 현지 활동을 벌인 후 다음 달 1일 귀국한다. 김원경 기자

스타 가라사대

수지 "광주 민주항쟁 자랑스럽게 생각"

"지금도 그 민주항쟁 때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회생당했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26년'을 관람한 뒤 27일 트위터에서, 광주 출신으로 영화 관람을 권유하며 "광주민주화운동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야겠다"면서,

손예진 "타워 찍으면서 솔이 진짜 많이 늘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 동지애가 생겼고, 자연스레 솔을 마셔야 할 것 같더라." 27일 영화 '타워' 제작보고회에서, 설경구, 김상경 등과 '타워'를 찍으면서 "솔이 진짜 많이 늘었다"며,